

문장 이해 과정이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놀라운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류 보편적인 인지 능력 혹은 과정의 산물이기에, 개별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등한 원리에 의해 말이나 글이 이해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한 언어의 이해 과정을 통해 언어 보편적인 기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언어심리학의 묘미이다.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여러 언어들을 비교해 보면, 어순, 어휘의 변화 등 문장으로 표현되는 과정에 여러 다양한 문법적 장치들이 사용되며, 이는 언어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그러기에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에 의해 문장이 이해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한 언어가 독특성, 즉 독특한 문법적 장치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해되는가의 질문도 같은 정도로 관심을 끈다. 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다른 언어 연구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혹은 간과하기 쉬운 인지적 처리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차이를 보이는 여러 문법적 특성이 있다. 어순이 그렇고, 조사와 어미 변형 같은 것이 명사나 동사와 붙어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다. 특히 조사와 같은 문법적인 장치가 한국어에 사용된다는 것은 언어심리학적으로 흥미 있는 주제가 된다. 조사는 명사에 부착되어, 그 명사의 문장 내에서의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통사적 범주를 규정해줄 뿐만 아니라, 주체(agent), 객체(patient) 등과 같은 문장 내에서의 그 명사의 역할 즉 의미역(thematic)에 관한 예측 혹은 암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의미역은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에 의해 확정된다. 아울러 조사는 맥락 내에

서 특정 명사구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과 같은 화용론적인 기능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조사가, 문장 이해 과정의 여러 하위 처리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통사처리, 의미처리, 화용처리가 중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한국어의 주제표지(topic marker)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며, 바로 본 연구가 이에 대한 탐구이다.

주제표지 명사구의 처리 과정

한국어 주제표지(topic marker) ‘는/은’의 처리 과정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많지 않다. 김영진(1998), 김영진과 최광일(2003)은 주제표지가 명사구에 부착되어 통사적인 중의성을 일으키는, 즉 주어로 기능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기능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읽기시간을 통해 비교하였다. 결과는 주제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때 읽기 시간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명사구의 초기값(default) 처리가 주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고성룡(2003)은 주제명사구의 문법적 제약과 처리 전략을 설문조사와 읽기과제를 통해 비교하였으며, 주제명사구가 상위절의 주어로 구절구조 상에서 투사된다는 ‘상위절 주어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Kim(1999), Kim(in press)의 연구에서도 주제표지 명사구가 주격표지 ‘가/이’가 부착된 명사구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주제명사구의 통사처리와 관계된 것으로, 주제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주어로, 특히 삽입절이 포함된 문장 구조에서는 주절의 주어로 구분 분석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주제명사구가 문장 이해과정에서 보이는 효과는 단순히 통사 분석 수준을 넘어선다. 주제표지의 보다 본질적인 기능은 통사

분석 수준이 아닌 의미 처리 수준이나 혹은 텍스트나, 대화의 맥락과 관련성을 짓는 화용론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 주제명사구의 기능에 관한 무수한 언어학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를 모두 개관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실제 이들 연구 결과들이 문장 이해 과정에 관한 언어심리학적 연구에 얼마나 시사를 줄 수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기에 본 개관에서는 주제 명사구에 관해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 분석을 하는 몇몇 연구들(김정란, 2003; Han, 1998; Kim, 2003; Lee, 2002; Wee, 2001)에만 초점을 맞춰 언어심리학적인 시사를 살펴보겠다. 국어학 연구는 남기삼(2001)과 박영순(1993)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들 언어학 연구들은, 주제표지가 문장의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인 처리에 중요한 어휘 구성성분임에 동의한다. 그리고 주제표지가 부착된 명사구가 주제(topic),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 대조(혹은 대비)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기능함에도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Han(1998)은 주어 위치에서는 주제명사구가 주제나 대조주제로, 목적어 위치에서는 대조초점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예(Han, 1998)에서 이들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 맥락: 메리와 수와 제인이 존의 집에 왔다.
 존의 아버지가 엄마에게, 존이 어느 여자아이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 (1) 존은 메리를 좋아한다.
 - (2) 존이 메리를 좋아한다.
 - (3) 존이 메리는 좋아한다.

1번 문장에서 존이 주제가 된다. 그리고 존이 이외의 다른 남자아이가 있었다면, 대조주

제로 입힐 수도 있다. 2번과 3번 문장의 비교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조초점의 역할을 보여준다. 2번과 같은 표현은, “엄마가 아버지에게, 존이 메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여자 아이(즉, 수와 제인)에 관해서는 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하지 않으려 할 때” 사용된다. 반면, 3번과 같은 표현은, “엄마 생각에 존이 메리 이외의 다른 여자아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를 아버지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즉 는/은 이 부착되어 대조초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¹⁾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번 문장으로 위에서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맥락에서 메리 이외의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일종의 전제된(presupposed) 집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와 견주어 한 대상이 초점이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3번 문장의 이해 과정을 고려해보자.

맥락: 같은 수업을 듣는 정혜, 인수, 영주 세 명이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는데 교수

1) 한 심사위원은, 이런 강한 해석은 “존은 메리만 좋아해”에 적용이 되며, 다음에 오는 문장으로 “그런데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어”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본 필자들이 간과한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지적에 감사드린다. 추후 “만”과 같은 특수 조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문 논의의 초점인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정과 대조의 의미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ee(2003)는 (3)번 문장이 대조 초점뿐만 아니라 대조 주제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민교수께 감사드린다. 역시 본 논문에서는 초점이나 주제이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중립적이며, 중요한 것은 대조의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가 들어왔다.

- (4) 교수가, 정혜가 영주는 은근히 방해했다고 생각했다.(일치조건)

맥락: 같은 수업을 듣는 정혜 영주 두 명이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는데 교수가 들어왔다.

- (5) 교수가, 정혜가 영주는 은근히 방해했다고 생각했다.(불일치조건)

동일한 4, 5번 문장을 맥락만 다른 상황에서 처리하는 경우, 4번 문장은 대조초점으로서의 이해가 가능하다. 즉, '영주'이외의 사람('인수')이 있기에 대조초점으로서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5번 문장은 그렇지 못하기에 다소 어색하고, 혹은 글을 읽는 독자가 대조 대상을 가정해야 하는 처리를 유발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추측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하면, 4번 문장은 주어진 맥락과 일치한 경우이고, 5번 문장은 맥락이 불일치를 일으키는 혹은 맥락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이며, 이것이 문장 이해 과정에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추측이다. 각각을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이라고 부르자. 지금까지 설명한 Han(1998)의 주장은 언어적 직관에 근거한 것이기에, 이러한 처리가 문장 이해 과정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즉 심리적 실재성 (psychological reality)을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문장이해 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 처리 부담의 국소 위치 혹은 처리의 즉시성이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맥락과 관련짓는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처리 효과가 주제표지 '는/은'이 부착된 주제명사구 위치에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문장 내의 동사 위치까지 지연될 것인가의 의문이다. 언어 이해의 일반 원리로 많은 연구자들이 즉시성(immediacy)을 든다(조명환외 11인, 2003). 이는 연속적인 언어 정보의 입력과 제한적인 저장과 처리 용량을 갖고 있는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처리 원리이다. 예를 들어 통사처리는 즉시적인 처리로 특징 지워지며, 이것이 구문분석의 기본 원리인 최소부착 원리로 나타난다(Frazier & Rayner, 1982). 하지만 통사처리와는 달리, 의미론적인 처리는 지연된다는 주장(Frazier, 1999)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여하튼 즉시적인 처리가 일어난다면, 4, 5번 문장의 주제명사구('영주는')에서 서로 다른 맥락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며, 처리가 지연된다면 부사어('은근히')나 삽입절의 동사('방해했다')에서 효과를 보일 것이다. 혹은 처리가 지연되어 문장의 마지막인 본 동사('생각했다')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전 연구 결과가 없어 명확한 예측을 하기 힘들다. 즉 맥락에 다른 주제표지의 효과가 어느 국소 위치에서 일어날 것인가가 두 번째 물음이 된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4, 5번 문장의 주제명사구나 삽입동사 혹은 본 동사 위치에서 어떤 처리 과정 혹은 읽기시간을 보일 것인가에 관한 예측이다. 앞서 논의했던 언어학적 주장은 실제 처리과정, 즉 문장 내에서의 단어 단어별 읽기시간에 관한 예측이 아니다. 단지 일반적인 두 조건간의 차이에 관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을 언어심리학적 처리 과정 가설로 바꾸어야 하고 그래야만 실험적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예로 든 4, 5번 문장이 각각의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고려해보자. 특히 4, 5번 문장 처리 전에 맥락 문장에 대해 어떤 처리와 표상이

형성되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자. 한 가지 가능한 가정은 맥락 문장을 읽고 이해한 후 독자들이 맥락이 지칭하는 상황에 대해 상황모형(Van Dijk & Kintsch, 1983) 혹은 심성모형(Johnson-Laird, 1983)을 형성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정한 장소(강의실)와 그 장소에 있는 인물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상호작용의 동기가 심상 혹은 명제 양식으로 표상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²⁾. 이 가정에 기초하면 4번 문장에서는 주제명사구에 대한 대조초점으로서의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영주는 방해하지만 인수는 아니구나!”라는 식의 이해 달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5번 문장에서는 언급된 대상이 “정혜와 영주” 두 명뿐이기에, 대조초점으로서의 이해가 방해를 받는다. 이 가정과 설명은, 4, 5번의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에 대한 처리가, 기본적으로 맥락 문장에서 형성한 모형에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이를 모형동화가설(model assimilation hypothesis, MAH)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주제명사구 위치(영주는)에서 5번 문장이 4번에 비해 읽기시간이 길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처리의 지연이 일어난다면, 혹은 처리가 즉시적으로 시작은 되지만, 그 종결이 반드시 그 입력 자리가 아니라면³⁾ 주제명사구 위치가 아닌 삽입 동사 혹은 본 동사 위치에서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2) 상황모형 구축 자체는 본 연구의 초점이 아니기에 간략한 기술만을 하였으며, 이해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황모형 구축의 차원에 관심 있는 독자는 Zwaan & Radvansky(1988) 참조하길 바란다.

3) 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가능성과 논지를 지적해준 한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안적인 가설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4, 5번 문장 같은 경우, 맥락 한 문장과 함께 단지 두개의 문장을 이루어져 있기에 과연 모형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두 문장이 지칭하는 상황에 대한 모형 형성보다는 국소적인 응집성(local coherence)을 형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즉 맥락 문장을 읽은 후 그 안에 포함된 의미 혹은 명제가 잘 정리된 심성 표상으로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주제명사구가 포함된 4, 5번 문장을 읽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문장을 맥락과 연결시키려는 즉 국소적인 응집성을 형성하는 처리가 이 문장 읽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부연하면 주제명사구가 포함된 문장을 읽으며, 맥락을 이루는 문장과 연결시키려는 처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맥락 문장에 포함된 전체의 내용과 관련성을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전제계산 가설(presupposition computation hypothesis, PCH)이라고 부르자. 이 가설에 따르면, 4번 문장의 주제명사구에서는 맥락 문장의 내용과 관련지어 대상을 계산하는 여분의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5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처리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⁴⁾. 그러므로 4번 문장의 주제

4) 한 심사위원은 “비일치 조건(5번)에서 대조초점 대상을 계산하는 여분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으며, 4번과 5번 문장 모두에서 모두 대조초점 정보에 의해 어떤 처리든 처리가 시작되는 점은 동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가설을 제기하는 목적은 이들을 상호 배타적으로 만들어 한 대안을 실험 결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MAH는 주제표지 명사구가 일치 맥락에서 빠른 읽기시간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고, PCH는 반대로 느린 읽기시간을 보일 것이라는 상호배타적인 가설이다. 이를 위해 PCH에서는 최소한의 가정 즉 국소 응집성 형성 과정만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5번 문장에서는 ‘정혜’ ‘영주’가 맥락 문장에 제시되

명사구가 5번에 비해 긴 읽기시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처리가 지연된다면, 혹은 처리가 즉시적으로 시작은 되지만, 그 종결이 반드시 그 입력 자리가 아니라면 긴 읽기시간이 삽입 동사나 본 동사 위치에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설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 대안적인 생각들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설은 서로 상반되는 예언을 하기에 의의가 있으며,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서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여겨진다. 실험 결과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다 세련된 가설과 이론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주제명사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언어학적 주장의 심리적 실재성과, 처리의 즉시성 혹은 지연 여부 문제, 그리고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각 단어 위치별로 어떤 읽기시간을 보일 것인가에 관한 대안적인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실험 1

였기에, 두 문장은 성공적인 응집성을 달성한다. 즉 '는'이 갖는 대조초점의 기능이 사용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4번 문장에서는 연결을 하지 못한 대상 '인수'가 존재하며, 이는 어떤 형태론든 두 대상('정혜' '영주')과 관련시켜야만 하고 이를 통해 두 문장과 네 명의 사람 대상에 대한 연결 즉 응집성이 확보된다고 여길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연결이 불가능하면 이는 작업기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언어 심리학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관련성 형성 과정을 '전제 계산'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 용어가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진다. 아마도 '응집성 계산'이란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에서는 Han(1998)이 제안한 주제표지의 대조 효과에 대한 심리적인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울러, 한국어 주제표지의 이해과정을 어떤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의 문장을 사용하여 자기조절 읽기 과제를 사용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6) 같은 수업을 듣는 정혜, 인수, 영주 세 명이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는데 교수가 들어왔다.

(6-1) 교수가 정혜가 영주는 은근히 방해했다고 생각했다. (일치조건)

(7) 같은 수업을 듣는 정혜, 영주 두 명이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는데 교수가 들어왔다.

(7-1) 교수가 정혜가 영주는 은근히 방해했다고 생각했다. (불일치조건)

실험 1에서 사용된 문장 조건은 참조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즉 대상의 수가 세 명인 조건(6번 문장)과 두 명인 조건(7번 문장)으로 구분하였고, 두 조건 모두에서 첫 번째 문장은 자극 문장(6-1, 7-1)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문장이었다. 첫 번째 조건(일치조건)인 (6)번 맥락 문장은 세 명이 함께 있는 상황으로 피험자로 하여금 세 명의 참조대상을 전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조건(불일치 조건)인 (7)번 맥락 문장은 두 명의 참조대상만을 전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피험자가 일치조건의 자극문장(6-1)을 읽는 과정에서 삽입절의 목적어 '영주는'을 만나게 된다면, 주제표지 '는'은 대조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목적어 영

주'는 맥락 문장에서 '정혜'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인수)과 대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대조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첫 번째 의미는 '정혜가 영주를 방해한다.'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정혜가 인수는 방해하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절의 주어인 '정혜'가 방해하는 사람을 '영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불일치조건인 (7-1)번 문장을 읽는 피험자는 삽입절의 목적어인 '영주는'에서, 삽입절의 주어인 '정혜'를 제외하고는 맥락 문장인 (7)번 문장에서 참조해올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따라서 이 때의 눈'은 어색한 어감을 주게 될 것이고, 일치조건과 비교하여 읽기시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피험자 아주대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74명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설계 두 조건에 대한 반복측정설계가 사용되었으며, 변인은 맥락을 제공하는 문장에서 제시되는 그룹 구성원의 수가 3명과 2명인 일치 조건과 불일치조건이다.

실험재료 피험자들이 제시받은 문장의 수는 모두 80개였으며, 이중 20개가 검사문장으로 두 조건(일치 혹은 불일치)에 10문장씩 배당되었고, 이는 두 목록 조건에서 균형화 하였다. 나머지 60개는 매우기 문장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의 예는 앞에서 제시하였다.

실험도구 문장의 제시와 반응시간의 측정은

E-prime을 사용하였으며, Dell사의 노트북을 이용하였다. 제시되는 문장의 폰트는 신명조 18 폰트였으며, 노트북 LCD의 해상도는 1024 × 768이었다.

절차 문장의 제시는 절을 단위로 자기 조절 읽기방식(1)을 사용하였다. 맥락 문장은 한 문장을 전체로 제시하고 피험자가 다 읽었으면 스스로 다음 자극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실험을 위한 검사 문장은 여섯 개의 마디 혹은 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절별로 나뉘어져서 제시되었다. 실험이 시작되면 화면의 수평, 수직 중앙에 '준비'라는 단어가 제시된 후 피험자가 '다음' 버튼을 누르면 곧 맥락문장이 문장 전체로 제시되었다. 피험자가 맥락 문장을 모두 읽은 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맥락 문장은 사라지고 화면의 수평 중앙 왼쪽에 문장의 첫 번째 어절이 제시되었고 나머지 어절은 밑줄(_)로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첫 부분을 읽고 '다음' 버튼을 눌렀으며, 그러면 첫 어절은 밑줄로 바뀌고 두 번째 어절이 제시되었다. 여섯 번째 어절까지 모두 읽고 난 뒤에는 절

5) 한 심사위원은 "자기 조절 읽기과제가 spill-over 효과가 상당히 작용하며, 그러기에 읽기과제만 사용하는 연구가 요즘에는 많지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spill-over 효과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즉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초점이 아니다. 단지 비교 조건 간에 어느 마디에서건 읽기시간이 차이가 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후자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실험 과제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해 쓰면 된다. '요즘에는 많지 않다'라는 일반화는 무리한 지적이다. 최근에 Mitchell (2004)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여러 온라인 과제들을 개관하며, 언어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과제(1)가 자기조절 읽기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문 문장이 제시되었으며, 질문 문장은 의문문의 형태로서 질문의 내용에 부합되는 인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반복되었고, 문장의 제시 순서는 피험자 별로 무선화 되었다.

결과 및 논의

질문 문장에 대한 정답률은 두 조건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1과 그림 1에 두 조건에서의 검사 문장의 마디별 평균 읽기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첫 어절인 '선생님께서', 두 번째 어절인 '정혜가', 세 번째 어절인 '영주는', 네 번째 어절인 '은근히'와 여섯 번째 어절인 '생각했다'에서는 일치,

불일치 조건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단지 다섯 번째 어절인 '방해한다고'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불일치 조건이 1029ms로 일치 조건의 935ms보다 느린 읽기 시간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미하였다 $F(1, 73)=4.341$, $MSe=643005.459$, $p=.041$, $F(1, 19)=6.572$, $MSe=173785.259$, $p=.019$.

실험 1은 Han(1998)이 제안한 주제표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차이가 문장이해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였다. 실험 결과, 삽입 문장의 목적어 위치에 있는 주제명사구의 읽기시간이, 맥락에 따라 어감의 차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삽입 문장의 동사 위치에서, 대조에 대한 전제가 자연스러운 일치조건이 불일치조건에 비해

표 1. 조건에 따른 마디별 읽기시간 (ms)

(6-1) 선생님께서 정혜가 영주는 은근히 방해한다고 생각했다.(일치조건)	704	639	847	774	935	814
(7-1) 선생님께서 정혜가 영주는 은근히 방해한다고 생각했다.(불일치조건)	711	600	846	735	1029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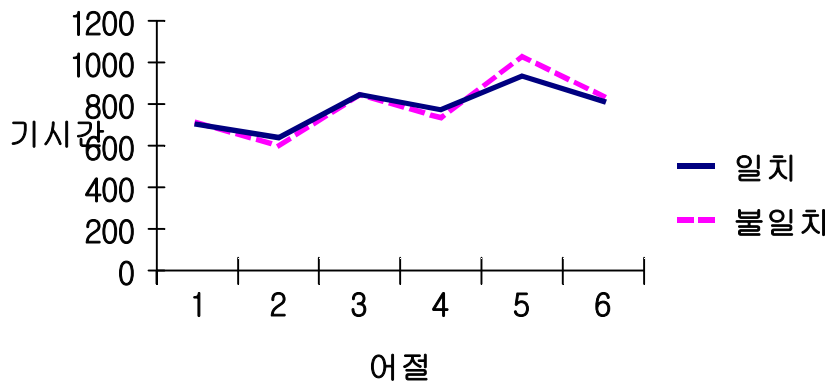


그림 1. 조건에 따른 마디별 읽기 시간

빠른 읽기시간이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어 주제표지 ‘는’이 가지고 있는 대조 효과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주제표지가 일으키는 차이가 실제 심리적 과정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조효과의 차이는 주제표지 ‘는’을 읽게 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맥락이 제공한 전제의 처리가 문장이 통합되는 삽입 동사의 위치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제표지가 일으키는 처리는 지연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 결과를 포괄하면, 서론에서 제기했던 두 가설, 즉 모형동화가설(model assimilation hypothesis, MAH)과 전제계산가설(presupposition computation hypothesis, PCH) 중 ‘지연 MAH’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실험 1의 절차가 맥락 문장 읽기 과제를 불성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맥락 문장의 읽기시간을 검토해본 결과 피험자들의 일부가 맥락 문장을 대해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읽기시간을 보였다. 따라서 다음의 실험 2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맥락 문장도 자기조절 읽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실험 1에서는 맥락 문장이 너무 간단하여 충분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보다 자연스런 맥락 문장을 사용하여 맥락으로부터의 모형 형성이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삽입 문장의 목적어에 목적격 조사 ‘를/을’이 부착된 조건을 추가하여 피험자들이 주제표지에 지나치게 관심이 가지 않도록 하였다.

실 험 2

실험 2는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예제 문장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8) 같은 유아원에 다니는/ 영수, 철수, 영희가/ 놀이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유아원 교사로 새로 부임한/ 여 선생님이 원장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왔다.
여 선생님이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지 물었다.
- (8-1)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
- (9) 같은 유아원에 다니는 영수, 철수, 영희가 놀이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유아원 교사로 새로 부임한 여 선생님이 원장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왔다.
여 선생님이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지 물었다.
- (9-1)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희는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
- (10) 같은 유아원에 다니는 영수, 영희가 놀이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유아원 교사로 새로 부임한 여 선생님이 원장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왔다.
여 선생님이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지 물었다.
- (10-1)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
- (11) 같은 유아원에 다니는 영수, 영희가 놀이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유아원 교사로 새로 부임한 여 선생님이
원장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왔다.

여 선생님이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지
물었다.

(11-1)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희는 좋아
한다고” 살며시 말했다.

각 조건의 첫 세 문장은 검사 문장(8-1, 9-1, 10-1, 11-1)을 위한 맥락으로 제공되었다. 맥락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되는 사람 이름(철수, 영희, 영수)이 2명 혹은 3명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주제표지와 목적격 표지의 읽기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를/을’을 포함하는 두 개의 문장 조건을 첨가하였다. 만약 주제표지가 대조효과의 전제를 가정하고 목적격표지 ‘를/을’은 대조효과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두 표지 조건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를/을’은 ‘는/은’과는 달리 대조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맥락으로 제공된 대상의 수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읽기시간을 보일 것이다. 즉, 대상이 둘 이면 셋이건 상관없이 ‘영수가 영희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9-1, 11-1)문장의 삽입문장 ‘영수가 영희는 좋아한다고’에서처럼 목적격 조사가 ‘는’일 때에는 목적어에 ‘를’이 부착되어 있을 때와는 다른 읽기를 보일 것이다. 즉, 9번 문장처럼 맥락문장의 대상 수가 세 명일 때, 한 명은 ‘좋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좋아하지 않 는’ 대조효과를 일으켜 ‘는’이 동사 ‘좋아한다 고’의 대상을 한정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맥락 문장의 사람 수가 2명일 때에는 대조효과를 일으킬 참조대상이 없기에 대조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색한 읽기를 강요하게

되며 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요약하 면 본 실험에서는 실험 1 결과의 대안적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시 한번 심리적 실재 성, 처리의 지연 여부, 대안적인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 법

피험자 아주대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64명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설계 2×2 요인 설계가 사용되었으며, 첫 번째 변인은 맥락을 제공하는 문장에서 제시되는 대상의 수(3명, 2명)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 이었으며, 두 번째 변인은 격표지(주제표지, 목 적격표지)조건이었다. 두 변인 모두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결과 분석에서는 목적격표지 조건 은 제외하고 주로 주제표지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재료 피험자는 모두 40개의 문장을 읽었 으며, 16개의 검사 문장과 24개의 매우기 무장 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조건은 2(일치 혹은 불 일치)×2(‘는’ 혹은 ‘를’)로 각 조건에 네 개의 문장이 할당되었다. 문장을 무선변인으로 보는 분석을 위해 네 개의 목록 조건에서 검사 문 장을 균형화 하였다. 사용된 문장의 예는 앞에 서 제시한 문장이었다.

실험도구 문장의 제시와 반응시간의 측정은 E-prime을 사용하였으며, Dell사의 노트북을 사 용하였다. 제시되는 문장의 폰트는 신명조 18 폰트였으며, 노트북 LCD의 해상도는 1024 × 768이었다.

절차 실험이 시작되면 피험자에게 실험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습시행과 본시행이 시작되었다. 각 시행에서 맥락과 자극문장의 제시는 절을 단위로 자기 조절 읽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어절별 제시방법이 8번 문장조건의 ‘/’로 표시되어 있다. 맥락 문장의 경우, 첫 번째 문장은 네 부분, 두 번째 문장은 세 부분, 세 번째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실험을 위한 검사 문장은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화면의 수평, 수직 중앙에 ‘준비’라는 단어가 제시된 후 곧 화면의 수평 중앙 왼쪽에 한 문장의 첫 번째 부분이 제시되었고 나머지 마디는 밑줄(_)로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첫 부분을 읽고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눌러 두 번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난 후에는 다음 문장이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맥락을 제공하는 세 개의 문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난 후에는 실험을 위한 검사 문장이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검사 문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난 후에는 질문 문장이 제시되었다. 질문 문장은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며, 방금 읽었던 문장의 의미에 비추어 맞을 경우는 왼쪽 화살표 버튼을, 틀릴 경우에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문장의 제시 순서는 피험자별로 무선화 하였다.

결과 및 논의

표 2와 그림 2에 네 조건의 마디별 평균 읽기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원장이 선생님에게’와 두 번째 마디인 ‘영수가’는 네 문장 조건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마디인 영화

(는/를)에서는 ‘는’조건인 9, 11번 문장의 읽기 시간(949ms, 868ms)이 8, 10번 문장의 읽기 시간(719ms, 653ms)에 비해 느린 읽기 시간을 보였으며,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하였다($F(1, 63)=35.122$, $MS_e=3178197.562$, $p<.001$, $F(1, 15)=32.121$, $MS_e=794549.391$, $p<.001$).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으로 나누어지는 9번과 11번 문장은 949ms와 868ms로 9번 문장이 더 느린 읽기 시간을 보였으며 이는 피험자 분석($F1$)에서는 약 9% 수준에서의 경향성을 보였고, 문장 분석($F2$)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F(1, 63)=2.944$, $MS_e=210559.939$, $p=.091$, $F(1, 15)=9.055$, $MS_e=105279.970$, $p=.009$). 실험 1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주제명사구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네 번째 마디인 삽입문장의 동사 부분 ‘좋아한다고’에서는 세 번째 부분이 ‘는’인지 ‘를’인지에 따라 9, 11번 문장이 1461ms, 1572ms로 8, 10번 문장의 947ms, 939ms보다 느린 읽기 시간을 보였으며,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63)=59.969$, $MS_e=21055335.996$, $p<.001$, $F(1, 15)=73.243$, $MS_e=5263883.999$, $p<.001$). 9번과 11번 문장 간에 약 110ms의 차이가 나와 불일치 조건이 긴 읽기 시간을 보였으나 $F1$ 에서만 약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1, 63)=2.706$, $MS_e=398640.786$, $p=.105$, $F(1, 15)=.629$, $MS_e=99660.196$, $p=.440$).

흥미로운 결과는 주제명사구가 사용된 9, 11번 문장에서 일치, 불일치 여부에 따른 효과가 3번째 마디(‘영화는’)와 4번째 마디(‘좋아한다고’)에서 역전된다는 것이다. 즉 9번 문장과 11번 문장은 각각 949ms와 868ms에서 1461ms와 1572ms로 읽기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나, 세부적으로는 4번째 마디에서 9번 문장과 11번 문장의 읽기 소요 시간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

표 2. 조건에 따른 마디별 평균 읽기시간(ms)

(8)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3인 맥락)	1086	755	719	947	785
(9)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화는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3인 맥락 일치조건)	1126	764	949	1461	968
(10)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2인 맥락)	1049	738	653	939	755
(11) 원장이 선생님에게 “영수가 영화는 좋아한다고” 살며시 말했다.(2인 맥락:불일치조건)	1096	760	868	1572	922

였다. 이 경향성 즉, 단어의 위치와 맥락의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은 사용된 문장의 수가 적어 단지 피험자 분석에서만 유의하였다($F(1, 63)=62.132$, $MSe=23618840.631$, $p<.001$, $F(1, 15)=1.701$, $MSe=148580.134$, $p=.212$). 이 역전 현상을 그림 2에 표시하였다.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같은 결과도 보여주었다. 실험 1 결과와는 달리, 주제명사구 위치에서 일치 조건이 불일치 조건보다 긴 읽기시간을 보였다(비록 $F1$ 과 $F2$ 가 모두 유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선 주제명사구에 관한 처리가 지연되

지 않고 그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실험 1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맥락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대안적으로 처리가 즉시적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그 종결이 반드시 그 입력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삽입절의 동사 위치에서는 실험 1의 결과와 같이, 일치 조건이 더 짧은 읽기시간을 보였다. 두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 나온 것이기에 실험 결과의 신빙성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특히 주제명사구 위치와 삽입 동사의 위치에서, 맥락 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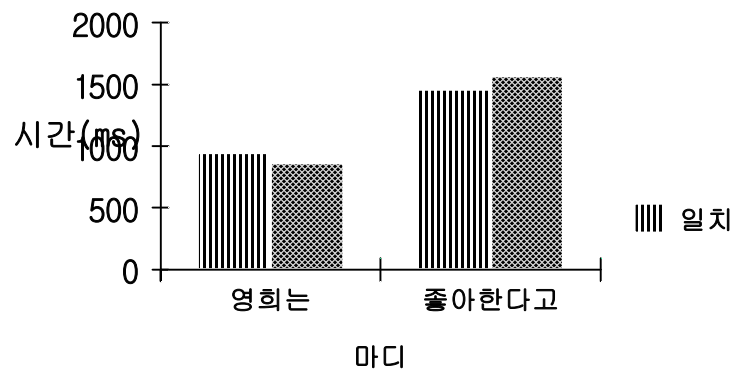


그림 2. 조건에 따른 목적어와 동사에서의 읽기 시간 차이

에 따른 읽기시간이 역전되는 사실을 관찰한 것은 이론적으로 흥미롭다. 이는 주제명사구 위치와 삽입동사 위치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관한 논의는 종합 논의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그리고 실험 1의 결과에 기초해 지연 MAH가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실험 2의 결과는 MAH와 PCH 가설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지 실험 2의 결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지연가설이며, 두 실험 결과를 포괄하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도 종합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주제표지 ‘는/은’이 부착된 명사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주어진 맥락 문장과 관련하여 주제표지가 부착된 명사구의 이해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출발점으로 언어학적인 주장, 즉 목적어 위치에 사용되는 주제표지 명사구는 대조초점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그 심리적 실재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주제명사구의 처리가, 즉각적으로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문장의 후반부까지 지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셋째로, 문장의 마디, 마디를 들어가며 어떤 처리 과정 혹은 처리 부담이 읽기시간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점으로 두 대안적인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모형 동화가설(model assimilation hypothesis, MAH)이었으며, 다른 대안은 전제계산가설(presupposition computation hypothesis, PCH)이었다. 전자는 주

제명사구가 갖고 있는 대조초점 기능과 불일치하는 맥락에서 긴 읽기시간을 보일 것을 예측하며, 후자는 반대로, 주제 명사구가 갖고 있는 대조초점 기능과 일치하는 맥락에서 긴 읽기시간을 보일 것을 예측한다.

두 실험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실험 1, 2 모두에서 한국어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마디별 읽기시간이 맥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한국어 주제명사구의 이해 과정이 온라인 이해과정에서 일어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즉 한국어 주제명사구가 갖고 있는 미묘한 용법이나 사용 과정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언어학적인 분석이 심리적 실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한국어의 특징은 주제표지가 외현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으로 이는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에는 없는 특징이다. 그러기에 한국어 연구를 통해 주제, 대조, 대조 초점 등과 같은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로,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 처리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 본 논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이란 모호한 표현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이다. 문장에 대한 통사적 구문분석 과정과는 달리 연구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정교한 분석 틀이 없기 때문이다. 문장들에서 의미 단위인 명제들이 표상되고 연결되며, 여러 사용 맥락과 어떻게 관련지어져 특정한 표현의 미묘한 활용이 가능한지를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러한 처리가 언어처리의 보편 원리라고 여겨지는 즉시성에 맞아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실험 2의 결과를 보면 주제표지의 처리가, 그 표지가 부착된 바로 그 명사구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시작이 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추후 실험을 통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지만, 이 결과는 주제표지 '는'은 '이' 유발하는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 처리도 역시 즉시성이라는 보편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맥락 문장이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과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 어느 조건에서 읽기시간이 길게 나올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동화가설과 전제계산가설을 비교하였는데, 두 실험 결과는 어느 가설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실험 1의 삽입 절의 동사에서 불일치 조건에서 유의한 긴 읽기시간을 보인 결과와 실험 2에서 보인 동일한 결과는 모형동화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 2의 주제명사구 위치에서 불일치 조건이, 실험 1과는 반대로, 짧은 읽기시간을 보인 것은 전제계산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두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각 구성성분에 다른 처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동사가 문장 마지막에 나오는 한국어의 경우, 동사에 선행하는 명사구들에서 지연 없이 통사처리가 이루어지고 문장 마지막인 동사에서 이미 이루어진 통사 구문분석에 대한 확증 혹은 재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영진, 2001). 비슷한 추측을 주제표지 명사구의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제명사구에서 전제 맥락과의 관련성을 계산하며, 대조초점의 대상을 활성화 시켜야 하기

에,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 일치 조건이 이러한 계산이 필요 없는 불일치 조건에 비해 긴 읽기시간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험 2의 결과가 이와 일치한다⁶⁾. 이 결과와 설명은 대명사 참조 과정에 관한 연구(이정모, 이재호, 김영진, 1998)와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생각은, 본 논문에서는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언어 처리에 관한 모형 이론적(model-theoretic) 접근(예, Altman & Steedman, 1998; Crain & Steedman, 1985; Sedivy, 2003)과의 관계에서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그리고 삽입 동사 위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처리 과정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는데, 일치 조건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처리와 잘 일치하기에 쉽게 이해 과정이 마무리 될 수 있고, 그러기에 짧은 읽기시간을 보였으며, 맥락이 주제명사구와 부합되지 않는 불일치 조건에서는 확증이 되지 않아 긴 읽기시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여기면 될 것이다. 실험 2의 결과로 이러한 경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이해가 위치에 따라 두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는 생각이다. 즉 주제명사구에서는 대조초점의 대상을 전제와 함께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며, 문장 마지막

6) 한 심사위원은 “필자들이 ‘는’이라는 대조초점 정보를 단지 대상들을 활성화 시키라는 ‘dummy’ 처리 정도라고 가정하고, 동사에서 이 처리를 확증하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대조초점’의 정보는 맥락에서 찾아져야 할 정보이지 동사구에서 확증될 정보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대조초점의 정보가 찾아져야 할 곳은 맥락이지만 그 효과(일치와 비일치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위치는 어디 일 것인가를 반문할 수 있다. 안구운동의 추적과 같은 방법의 사용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동사에서는 이 활성화된 대상들에 주제명사구 포함 문장의 의미를 연결 혹은 부착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생각이다. 이런 두 단계 처리라는 의미에서 이 생각을 재활성화와 부착가설 (reactivation & attachment hypothesis, RAH)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실험 2의 결과를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특히 일치 여부와 위치에 따라 읽기시간이 역전되는 현상(그림 2참조)은 이 설명과 잘 일치한다. 하지만 실험 2의 결과만으로는 이 설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실험 2에서 삽입동사의 읽기시간이 일치와 불일치 조건간에 경향성은 보였지만 피험자 분석과 문장 분석에서 있어 일관성 있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한 문제가 있다. 추후 실험적인 반복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룡 (2003). 우리말 주제명사구의 문법 제약 및 처리전략. 미발표 논문.
- 김영진 (1998). 조사 ‘는/은’이 포함된 관계절 문장의 이해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0, 119-133
- 김영진 (2001). 한국어 문장처리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3, 339-359
- 김영진과 최광일 (2003). 한국어 주제표지의 다의성 처리: ‘는’은 가인가? *한국실험및 인지심리학회 2002년 겨울학술대회발표 논문집*, 57-62.
- 김정란 (2003). 한국어에서의 대조의 -는과 짝짓기 -는. *한국생성문법학회 2003년 가을 학술대회*, 47-51.
- 남기심 (2001).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 박영순 (1993). *현대 한국어 통사론*. 서울: 집문당.
- 이정모, 이재호, 및 김영진 (1998). 한국어 이해와 산출의 심리적 과정. 이정모와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I: 언어와 인지*. 119-153.
- 조명환 외 11인. (2003).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 Altmann, G., & Steedman, M. (1998). Interaction with context during human sentence processing. *Cognition*, 30, 191-238.
- Crain, S., & Steedman, M. (1985). On not being led up the garden path: The use of context by the psychological parser. In D. Dowty, L. Karttunen, & A. Zwicky (Eds.), *Natural Language Parsing* (pp. 320-35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zier, L. (1999). *On Sentence Interpreta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razier, L. & Rayner, K. (1982). Making and correcting errors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Eye movements in the analysis of structurally ambiguous sentences. *Cognitive Psychology*, 14, 178-210.
- Han, C. (1998). Asymmetry in the Interpretation of -(n)un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ume 7*. Stanford: CSLI Publications.
- Johnson-Laird, P. N. (1983). *Mental model: Toward a cognitive science of language, inference, and conscious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J.-R. (2003). Topic, contrast, and conventional Nun phrases in Korean. *Proceedings for 2003 Harva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 Korean Linguistics.
- Kim, Youngjin (1999). The effects of case marking information on Korean sentence processing.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4, 687-714.
- Kim, Youngjin (in press). Resolving grammatical marking ambiguities in Korean: An Eye-tracking Study.
- Lee, Chungmin (2002). Contrastive topic vs. contrastive focus. 2002 Winter conference of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Lee, Chungmin (2003).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In W. McClure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ume 12*. Stanford: CSLI Publications.
- Mitchell, D. (2004). On-line methods in language processing: Introduction and historical review. In M. Carreiras & C. Clifton (Eds.), *The on-line study of sentence comprehension* (pp. 15-32). New York: Psychology Press.
- Sedivy, J. C. (2003). Pragmatic versus form-based accounts of referential contrast: Evidence for Effects of Informativity Expectation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2, 3-23.
-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Wee, H.-K. (2001). Sentential logic, discourse and pragmatics of topic and focus. Indiana University Dissertation.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 162-185.

1 차원고접수: 2004. 7. 28

2 차원고접수: 2004. 10. 28

최종게재결정 : 2004. 12. 17

Comprehension Processes of Korean Topic-marked Noun Phrases

Youngjin Kim

Youn Y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examine comprehension processes of Korean topic-marked noun phrases. Especially, we compared self-paced word-by-word reading times of the topic-marked sentences under the two different contexts (i.e., consistent and inconsistent) to investigate the contrast focus function of the topic marked NPs. In Experiment 1, reading times of embedded verbs were longer under the inconsistent contexts than those under the consistent contexts. In Experiment 2, however, reading times of the topic-marked NPs were longer under the consistent contexts than those under the inconsistent contexts. These results showed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the contrast focus function of Korean topic marker. It was suggested that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Korean topic-marked NPs might be processed immediately and be computed through two stages: reactivation and attachment.

Keywords: topic markers, contrast focus, immediacy, referential processes